

선택, 몰두, 그리고 출발



權 寧 善

- 1963年 4月 27日生
- 충남 예산 産
- 예산고 졸업(82年)
- 연세대 행정학과 졸업(86年)
-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89年)
- 89年 行政考試 財經職 合格

I. 선택

나는 고시공부를 하면서 考試生이라는 말을 듣기 싫었고, 그렇게 인식되는 것도 싫었다. 고시생하면 떠오르는 것이 편협하고 고집세고 자기의 세계에서만 살아가는 存在가 아닌가 한다. 사실 이런 표현이 그 나름의 타당성은 있다 생각한다.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읽고 암기해야 하는 作業은 사람을 편협한 우물안에서만 살아가게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 역시 그러한 과정을 自意에 의해 선택하고 그러한 생활을 해왔다. 그러므로 그러한 과정을 거친 사람의 하나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고시공부하는 사람의 사회도 일반사회 하나의 축소판으로서 여러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고정된

시각에서 고시공부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편견이 아닌가 한다.

처음 고시공부를 시작할 때 이와 같은 고시에 대한 부정적인 대학내의 분위기는 상당히 나를 위축시켰다. 그러나 대학 4년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고 무엇인가 눈에 가시화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고 집중할 것을 찾다보니 행정고시를 택하게 되었다.

처음의 고민은 왜 행정고시를 하는가의 문제와 어느 직렬을 택하느냐의 문제였다. 즉 무작정 행시를 시작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나름대로의 확고한 동기가 있어야만 어렵다고하는 공부과정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쉽게 그것을 찾을 수는 없었다. 몇일을 두고 생각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자”라는 것

은 스스로에게 부끄럽기 짝이 없는 전 근대적인 발상인 것 같아서 두번다시 생각할 수 없었다. 권력을 추구한다는 것도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결국 끝에 도달한 것은 여러 직업중의 하나로서 公職을 선택한다는 것이었다. 직업의 하나로서 몰두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았다는 것 자체가 내게는 동기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다음 어느 직렬을 선택할 것인가가 문제였으나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 중반까지 理科였기 때문에 행정학과에 가기는 했으나 적용하기 힘들었던 나에게서는 경제학이 훨씬 재미있고 쉽게 느껴졌다. 그러므로 주저하지 않고 財經職을 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II. 시행착오

고시공부는 3학년 초에 시작했다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때는 선배와의 상의없이, 아무런 정보도 없이 3~4個月 공부했으므로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그 충격은 매우 컸다. 그동안 물론 떨어질 시험도 없었지만 시험에 떨어져 본 경험이 없는 나에게서는 부족하나마 시험에 붙겠지하는 일말의 희망이 있었으나 그것이 여지없이 깨졌기 때문이었다. 성적을 알아보니 Cut line에서 6점정도 아래였다. 충격이 좀 누그러진후 원인분석에 들어갔다. 합격기도 읽고 선배와의 대화를 통하여 方法論上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영어를 제외하고는 기본서 위주로 하였다. 책만 여러번 읽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되겠지하고 시험보기 일주일전

까지도 책을 잡고 있었다. 결국 시간에 쫓기면서 겨우 1번반정도 문제집을 풀고 시험에 임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비비꼬인 객관식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문제집 위주로 하라는 선배의 말을 받아들여 4학년 개학과 동시에 1차 준비에 들어갔다. 영어는 늘 조금씩 하였으므로 특별히 준비하지 않고 헌법은 권영성·민경식, 민총은 이근식·송희성 및 김주수교수님의 문제집으로 반복공부하였다. 경제학은 적당한 문제집이 없어서 박홍집문제집 정도 풀어보고 동문제집의 요약내용을 검토했다. 이미 미·거시, 화금, 재정학, 국제경제학 등을 수강한 후였으므로 크게 문제 되지는 않았다. 국사는 고등학교 때부터 나에게 있어 난적이었다. 특히 국사의 경우 꼬여나오면 대책없는 과목이 아닌가 한다.

아마 일차시험이 85년 6월 9일로 생각된다. 시험후 시간이 남아 오전오후 모두 10분 정도 일찍 나왔다. 그러나 마음 속으로는 붙었다하는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발표일이 가까와 올수록 10분정도 먼저나온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후시나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으나 결과는 합격이었다. 정말로 그때만큼 기분이 좋았던 때는 없지 않았나 생각된다.

III. 자만과 방향

2학기가 되어 너무 일찍 2차를 시작하면 나중에 지쳐서 못하느니 하며 같이 합격한 친구들과 연고전에도 가고 미팅도 하면서 많이 놀았다. 10월이 되

어 대학원 준비를 하며 K 라는 이성을 만났고, 몇번의 데이트를 통해 무척 가까워졌으나 여러 이유가 겹쳐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짧고 또한 나에게서는 정말 매력적인 존재로 인식되어서인지 다음해 2차시험 보기전까지 헤메는 요인이 되었다.

연대 행정대학원에 적을 두고 공부해나가기로 했다. 대학원시험후 학기말 시험을 치르니 86년이 눈앞에 와 있었다. 시골에 가 신정을 지내고 올라와 곧바로 2차에 본격 돌입했다. 7개월 정도 남은 시점이었는데 처음 2차를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짧게만 느껴졌다. 그동안 놀은 것이 후회되었고 짧게 느껴지는 기간 때문에 초조한 마음으로 지내야 했다. 그만큼 마음의 여유는 없었고 공부에 집중할 수도 없었다. 이러한 상태는 나를 무척이나 외롭게 만들어 괜히 의존하고 싶고 하소연하고 싶은 누군가를 찾아 헤매게 하였다. 생각해보면 같이 공부하던 준희, 상덕이란 친구와 근처 여대입구에 가서 공부 안 된다고 술마신 것이 한두번이 아닌 것 같다.

IV. 편법과 그 한계

뒤늦게 정신차려 50일정도 학교근처 고시원에서 나와 2차에 전념했다. 공부하면서 스스로 공부량의 부족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고, 그때마다 역부족이한 생각이 들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곤 하였다. 결국 암기한 것이 너무나 적어 틀위주로 공부하여 큰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려 했다. 특히 행정학의 경우 몇가지 變數와 접근법

만을 공부해 대처하기로 하였다.

2차시험장에서 조마조마 기다리다 문제지가 펼쳐지고난 후 바라본 문제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일수록 나는 미소지을 수 있었다. 나름대로 논리적 틀을 세우고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답안을 구성할 수 있었기에 시험을 치르면서 의외의 문제가 나올수록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면에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담을 수 없었다. 그저 2시간동안 내용은 없으나 나름대로 답안을 구성했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했다.

시험발표일이 다가올수록 떨어진 것 같다는 확신을 커갔고 결과도 나의 예측력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이었다. 게다가 대학원 수업을 소홀히 했더니 한 과목이 Fine 이었다. 석사장교시험도 볼 수 없을 것 같고 2차에서도 떨어지니 최악의 상태 그 자체였다.

결과확인후 시골집에가 하루밤을 지낸 후 수덕사에 갔다. 답답한 마음을 풀수가 없었기에 수덕사 뒤의 덕숭산을 오르며 이것저것 생각했다. 어쩌면 떨어지는 것이 당연했으리라. 여자문제로 헤매고 괜히 초조해하다가 겨우 한 두달 제대로 공부한 후 합격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한심하게 느껴졌다. 어머니는 그저 아무말없이 바라다볼 뿐이었다. 수덕사에서 온 후 곧장 상경했다.

五. 재도전

그리고는 바로 다음날부터 다음해 1·2차 동시에 합격을 목표로 다시 공

부를 시작해 Subnote에 들어갔다. 학교도서관에 자리잡고 과목당 30page를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subnote를 했다. 내년엔 1차 후 70~80일 정도의 기간동안 2차 7과목을 정리하고 시험기간 동안 매일 7~8시간내에 2과목을 일회독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분량이 적당하다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일주일에 한 과목씩 subnote를 좀 빈약한 내용이나마 완성해 나갔다. 행정학·경제학 등 윤리를 제외한 6과목에 대한 subnote가 끝나갈 때는 이미 87년이 몇주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대학원 성적이 나쁘고, 시험에 떨어진 후 교수님 뵈면 면목도 없어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대학원을 옮기기로 마음 먹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시험이 다음해 2월초에 있어서 다음해 1월과 남은 몇 주는 대학원 공부를 했다. 87년초 대학원을 옮길 수 있었고,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을 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그 동안 같은 것을 반복하는 공부만하다 대학원에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었으므로 수업은 매우 재미있었다. 그래서 대학원 공부에 열중하다 보니 1차에 소홀히 하게 되었고 어이없이 인원이 두 배나 늘은 1차에서 떨어지는 쓴맛을 보아야 했다. 2학기때는 행시를 그만두고 취직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생각에 빠져, 공부는 안하고 대학원 동료들과 당구장자에서 또는 친구하숙집에서 동양화를 감상하며 그냥저냥 보냈다.

겨울방학 때 다시 마음을 정리하고 윤리 subnote를 하고 기존 subnote를 보강했다. 1·2차 동시에 할 생각은 있

었으나 전년의 경험을 거울삼아 개학 후 3개월 동안은 1차에 전념했다. 1차 후 대충 일회독이 끝나갈 무렵 그 결과가 나왔는데 합격이었다. 그런데 이 때는 2차가 걱정이 되어 그저 담담할 뿐이었다. 2차시험전 10일과 시험기간동안은 정말 열심히 했다. 2차시험을 치르며 찍은 것도 나오고 하여 웬만하면 합격하겠지 하는 일말의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VI. 실패와 번외

2차시험이 끝난 후 이틀 뒤 개학을 했고 졸업논문이 코앞에 닥쳐 논문준비에만 매달려야 했다 아울러 다음해 있는 석사장교 시험에 대비하여 제2외국어를 준비해야 했으므로 재수생학원에 나가 일본어를 수강해야 했다. 그런 와중에 시험결과가 나왔는데 또 불합격이었다. 이 때 떨어지고나니 이제는 내자신의 능력에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시험을 잘보았다 생각한 것이 몇 과목 있었는데 성적이 대체로 50점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다.

논문이 아무리 급해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 무작정 길을 떠났다. 강남터미널에서 어디로 갈까하다 경포대에 가기로하고 강릉행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다. 경포대에 도착하니 이미 날은 저물어 저녁이었다. 방을 잡고 해변을 거닐며 자신에 대한 불만과 혐오감을 삭혀야 했다. 바다를 향해 우뚝서 아래배에 힘을주고 포효를 하고나니 조금은 응어리가 풀어짐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날 설악산에 가 울산바위 코스

를 들었다. 가다가 빈대떡을 안주삼아 막걸리 한 잔을 들이키고 이것 저것 생각하며 산행을 하다보니 사는 것이 별 것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무엇때문에 그렇게 마음아파 하는가? 그 시험이 내게 있어 그렇게도 큰 비중을 차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떠올랐다. 한날 살아가는 수단의 선택에 있어 그것이 뜻대로 안되었다고 해서 고통받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왜소해 보였다. 설악동에 내려왔을 쯤에는 완전히 마음의 평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제 남아 있는 한 번의 기회, 졸업 후 군에 입대하기 전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고 결과에 따라 제대후 미련없이 다른길을 가리라 결심을 했다.

VII. 마지막 시도 그리고 위기의 순간

논문이 12월 겨우 통과되었다. 그 후에는 석사장교시험에 몰두해야 했으므로 89년 3월까지까지는 거기에 매달려야 했다. 석사장교시험후 낙달남짓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는 마음의 동요없이 학교도서관에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다. 짧지도 길지도 않은 적당한 시간이었던 것 같았다. 시험보기 10일전까지 2회독하여 기억을 되살리고 10일간 마지막 최종정리를 했다. 다행히 5월 말 석사장교 결과가 좋게나와 큰 부담을 덜 수 있었고 어느때 보다도 차분히 그리고 담담하게 시험에 임할 수 있었다.

2차시험 첫날부터 출발은 순조로웠다. 무난히 윤리·행정법을 치르고 다

음날 있는 경제학에서는 의외의 문제가 있었으나 그런대로 넘길 수 있었다. 그런데 경제학에서 좀 더 잘 쓸수 있는 것을 깔끔히 쓰지못해 아쉬움이 남았다. 셋째날은 좀 어려운 편이었고 통계학은 세문제 무난히 작성했다 생각되었다. 단지 작은 문제인 "비모수 추정과 Wilcoxon의 순위합검정"이 의외였으나 비모수 추정은 옛기억을 되살려 쓸 수 있었고 wilcoxon의 순위합검정은 개념정도 기억해 낼 수 있었다. 크게 기대는 안했는데 의외로 통계학이 82.47이 나와 합격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할 수 있다.

그러저럭 통계학을 끝내고나니 마지막 5일째의 화금만 무난히 끝내면 이번에는 합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화금의 문제가 펼쳐지고나서 바라보니 큰 문제가 금융정책의 전달기구(transmechanism)이었고 작은 문제가 억압인플레이션과 통화주의와 은행주의의 비교이었다. 세번째 문제는 무난히 쓸 수 있었고 억압인플레이션은 본듯한 감은 들었으나 도대체 생각이 나질 않았다. 결국 적당히 논리적 틀만 갖춰 나름대로 문제를 해석해서 쓸 수 밖에 없었다.

큰 문제인 금융정책의 전달기구가 정신이 혼미했던지 의외의 결림들로 작용을 했다. 화금은 조순교수님의 화금으로 공부했는데 그 책에서는 이를 금융정책의 파급경로라 해석하여 설명하고 있었다.

즉 process로서 이해하고 있던 나는 전달기구란 말에 접해 기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시간에 쫓기

다 보니 기구를 어떤 장치 즉 실체로 이해하고 통화량과 이자율 중심으로 답안을 썼다. 그런데 그 개념이 확실히 머리속에 떠오르지 않아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파급경로를 언급할 것인가 망설이다 이자율과 통화량에 관련 되는 범위내에서 소목차로 언급하는데 그쳤다. 시험끝난후 나오자마자 책을 꺼내보니 파급경로를 묻는 아주쉬운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한 다른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썼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아찔한 현기증을 느낄 수 있었다.

괄호 끝에 적혀있던 transmechanism이란 표현에 좀 더 유의했다 라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텐데 너무나 큰 실수를 한 것이다. 온몸의 힘이 빠지고 그 동안의 노력이 한 순간의 실수로 물거품이 되는구나 생각하니 어이없고 허탈했다. 고시원에 돌아와 멍하니 천장만을 바라보고 한없이 누워있었다. 아마도 마지막으로 화폐금융론을 시험보지 않고 도중에 시험보았다면 나머지 과목은 포기 했을 것이다.

VIII. 나에게도 행운이

5일후 입대하여야 했으므로 설여유가 없었다. 화금의 과락이 거의 확실하다 생각되었으므로 입대할때쯤에는 체념할 수 있었다. 입대해서는 정신없이 지냈으므로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다만 불침번이나 동초가 되어 새벽녘에 1시간 동안 멍하니 서 있어야 할 때 그 때의 실수가 생각나 한숨짓곤 했다. 그러나 결과를 담담히 기다릴 수 있었

다. 어찌피 나의 길이 아니라면 미련없이 제대후에 다른길을 갈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3사관학교에 입교후 발표일이 10월의 어느 토요일 이었는데 그 날이 또한 중대별 분열 측정이 있는 날이었다. 내가 오와열의 기준이었으므로 나의 보폭과 행진속도에 따라 중대 전체의 행진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측정의 결과가 매우나빠 끝에서 두번째였다. 모든것이 잘 안되는 것을 보니 이번에도 틀렸구나 생각하고 점심을 들고 있는데 동료가 와서 살짝 귀뜸으로 합격연락이 왔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담담하고 상쾌하게 매듭을 지었다는 안도감으로 씨익 웃을 따름이었다.

IX. 참고의 말

이제 고시공부에 있어 몇가지 느낀 점 내지 주의할 점을 경험에 비추어 언급하고 끝을 맺기로 한다.

첫째, 일단 고시를 택한이상 가능한 빨리 끝내는 것이 현명하다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생활을 단순화하여 시험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둘째, 많은 경우 여자문제가 큰 장애요인으로 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또한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었다. 있을려면 확실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면 정리하여 시험끝날때 까지는 참는 것이 현명하다 생각한다.

셋째, 고시에 있어서는 노력이 그 첫째로 암기가 중요하나 그에 못지 않게 technique 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그

러나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technique은 없으며 자기 나름의 방법론을 찾아야 할 것 같다.

네째, 생활에 리듬을 갖고 지나치게 하루의 공부시간에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루 8~10시간 정도 꾸준히 해나가고 주말에는 가볍게 쉬며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섯째, 2차의 경우 과목마다 접근법과 변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문제에 접하여 답안을 작성할 때 논리성을 유지하고, 분석을 하는데 있어 일관성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상학문의 理論的인 史的推移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과목의 서론에 대한 공부에 충분이 되어 있어야 한다.

여섯째, 공부가 어느 정도 되었다. 싶으면 그룹스터디를 통하여 자신의 실력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고, 답안도 자주 작성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 모의시험 후에는 각자의 답안을 갖고 토론을 통하여 모범답안을 구성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그날 그날의 암기량을 채우거나 정해진 책장수만을 넘기려 하지 말고 목차를 문제화하여 답안을 구상해 봄으로써 방금 읽은 것을 종합적으로 연상해보는 습관을 기르면 암기에 특히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일곱째, 2차시험시 과목당 2시간의 시간이 주어지는 데 문제는 대개의 경

우 3문제이다. 가끔 문제당 시간배정을 소홀히 하여 시험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어느 한 문제를 잘알거나 또는 모르는 거라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나 소홀히 하면 점수가 잘 안나온다 할 수 있다. 이는 각 문제당 배정된 점수가 50점이나 25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험에 의하면 20분정도 초안잡고 큰 문제에 50분을 쓰고 작은문제에 각각 25분씩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 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아무리 모르는 것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최대한 짜내어 답안을 부족하나마나 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여덟째, 나도 여러번 선배들로 부터 아무리 한 과목을 망쳤어도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옳은 것 같다. 흔히 채점은 시험위원이 하지 수험생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다. 시험성적은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속단할 수 없다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것이다. 나의 경우도 화폐금융론이 과락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성적을 보니 50점대였다. 결국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자세가 아닌가 한다.

지금까지 짧지않은 나의 고시준비생활과 그 과정에서 깨달은 바를 가급적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 노력하였다. 끝으로, 바라는 것은 나의 이 拙稿가 내가 시험준비중 다른 사람의 합격기를 통해서 힘을 얻었듯이 독자에게 작으나마 힘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이다. 모든 시험 준비중인 분께 합격의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